

‘기러기엄마로 살기’: 일상생활의 구성 그리고 관계 맺기*

A Qualitative Study on the Wild Goose Mother's Everyday Life,
Family Relationship and Social Networking

광주대학교 가족복지전공
교 수 김 선 미**

Dept. of Family Welfare,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Kim, Seonmi

〈 목 차 〉

- | | |
|--|---|
| I. 기러기가족 연구의 경향과
기러기 엄마 일상생활 연구의
필요성 | IV. 타인들과 관계 맺기
“한국인은 안 만나고,
미국인은 못 만나고” “철저하게
우리 가족만 살고 있는 거야” |
| II. 연구방법, 연구과정 및 기러기
엄마들의 특성 | V. 가족들과 다시 관계 맺기 |
| III. 일상생활의 구성 | VI. 논의 : 기러기엄마의 일상생활의
특성과 전망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ethnography i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wild-goose mother's everyday life, her family relationships, and her social networking. Thirteen mothers from New York, California, and Texas, U.S.A., were interviewed with an unstructured questionnaire. Their residency and everyday schedules are arranged around the children's educational conditions. They have experienced difficult relationships with Korean American immigrants, Korean students, other wild-goose mothers, and Americans. They have failed to develop their social capital effectively due to the language barrier and a cultural capital deficiency. As a kind of family strategy, this separation sometimes strengthens the spousal relationship, preventing divorce, but

* 이 논문은 광주대학교 2009년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초고는 2008년도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2008년 5월 17일)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학회 발표 시 주의 깊은 논평을 주신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의 이재인선생님 그리고 귀중한 조언을 주신 본 학회지의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주저자, 교신저자: 김선미 (yupy1005@hanmail.net)

usually weakens the emotional ties and qua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The acculturation gap between the mother and her children may cause the mother to become alienated and exacerbate the generational conflict.

Key Words : 기러기엄마(wild goose mother), 일상생활(everyday life), 가족관계(family relationship),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ing)

최근 한국 가족 변화의 한 가지 특징을 반영하는 기러기가족의 증가 추세는 한국사회의 교육과 가족 그리고 여성의 삶이 교차하는 복합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미국에 거주하게 된 어머니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연구이다. 기러기가족 증가의 중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의 삶 자체에 깊이 주목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가족의 장기적인 국제 분거를 결정한 후, 기러기엄마들은 현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구성하고 유지해야 하는 삶의 과제를 수행한다. 이 연구는 “기러기엄마 되기 과정 연구”(김선미, 2007)의 후속 연구로서 동일한 연구대상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기러기엄마가 된 후 현지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하는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려는 것이다.

논문의 순서를 보면, 먼저 I절에서는 그 동안 수행된 기러기가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경향과 이 연구와 관련 깊은 연구결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어 II절에서는 연구방법과 연구과정을 소개하고 연구의 참여자요 체보자인 기러기엄마들의 특성을 소개한다. 그리고 III절에서 기러기엄마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물리적인 환경과 생활시간의 구성을 통해 기술해 보았다. 그리고 나서 일상생활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분석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는데, IV절에서는 현지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V절에서는 새롭게 재편되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마지막 부분인 VI절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 드러난 기러기엄마들의 일상생활의 특성과 전망을 종합하여 해석적으로 논의하였다.

I. 기러기가족 연구의 경향과 기러기엄마 일상생활 연구의 필요성

기러기가족의 증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폭과는 대조적으로 그 동안 소수의 학자들만이 기러기가족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이 분야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기러기가족에 대한 연구들은 첫째, 조기유학 그 자체에 관한 연구-주로 학생들의 적응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 (조혜영, 2007; 조혜영·최원기·이경상·Nancy Ablemann, 2007; 조삼섭·심성옥·신일기·이지현, 2006; 전현옥, 2003; 한준상·기영화·강영환·박현숙·샤론 메리엄, 2002), 둘째, 국내에 살고 있는 기러기아빠의 생활상에 대한 연구 (김성숙, 2006; 최양숙, 2005; 김양희·장은정, 2004; 엄명용, 2002), 셋째, 기러기엄마 연구 혹은 기러기엄마가 체보자인 연구(김선미, 2007; 김영희·최명선·이지향, 2005; 조은, 2004)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기러기가족의 부부 혹은 기러기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분석한 연구(최양숙, 2006, 2008)는 비교적 최근어야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희소하나마 기러기엄마에 초점을 둔 세 번째 범주의 연구들의 연장선에 있다. 기러기엄마와 관련된 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조은(2004)은 재미 캘리포니아지역의 기러기가족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에서 기러기가족의 사회적 위치 그리고 한국사회의 특성이 기러기 가족 현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 천착하였다. 연구결과 기러기가족의 사회경제적 위치의 유사성을 발견했으며, 기러기가족의 자녀교육열은 세계화의 최첨단에서 주변부 자본주의 국가의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에서 파생된 가족의 도구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기러기엄마를 만나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한 연구인데 주로 기러기가족이 되기로 한 이유와 원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 때 기러기엄마들은 연구의 주요 대상이 아니고 제보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김영희 외(2005)의 연구는 뉴질랜드 기러기엄마들을 양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여 거주기간과 이주 동기, 자녀의 유학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한국에 있는 남편과의 연락, 뉴질랜드에서의 인간관계와 여가활동 그리고 적응상황을 기술(記述)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또한 자녀와의 갈등, 조기유학에 대한 평가, 현지적응의 어려움, 남편과의 연락과 현지 네트워킹의 난점을 보여주고 있다. 양적 연구의 특성으로서 많은 제보자로부터 일반적인 경향을 규명하는 성과를 얻고 있는데, 연구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기러기엄마들에 대해서도 모집단의 완전한 파악이 어려운 한계 속에서도 향후 이와 같은 양적 연구가 시도되기를 희망하며 본 연구와 같은 질적 연구의 탐색적 결과들이 양적 연구의 변수들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김선미(2007)의 연구는 ‘어떻게 기러기엄마가 되는가?’에 관해 정기체류형 기러기엄마, 귀국 후 재출국형 기러기엄마, 의도하지 않은 기러기엄마, 이민의 과정을 주도하는 기러기엄마로 유형(有形)화하여 그 다양성을 보여 준 질적 연구이다. 이 논문은 이렇듯 다양한 유형이 산출되

는데 작용한 복잡한 상황과 맥락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러기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넓은 세상, 자유로운 세상’이라는 한국과의 차별성 경험, 현지 영어교육을 위한 미국행의 적기, 정착지의 선택, 남편의 혼자살기와 시댁과 관계 재정립 등이 당사자들의 관심의 주요 주제(主題)가 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기러기가족을 단위로 한 연구는 이 분야 연구물이 다소 축적되기 시작한 최근에 들어서 “조기유학 가족 그리고 기러기아빠”(2005)를 연구했던 최양숙이 시도하고 있다. 기러기엄마와 관련되어 최양숙의 연구(2006)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기러기가족의 부부가 부부분거를 통해 서로 다른 경험을 하며, 분거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유리하므로 내용상 여성이 주도한다는 점을 도출한 성별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나중 연구(2008)에서는 분거가족의 사회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가족의 국제적 분거의 결정에 영향을 준 원인을 분석하는 차원으로서, 학력 혹은 학벌사회 그리고 세계화라는 사회적 조건과 분거, 개인의 성취 그리고 개별화의 허용과 같이 개인주의적으로 가족가치가 변화한 점과 자녀교육에 집중 투자하는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 및 부부관계보다 부모자녀관계를 우선시하는 가족관계, 시집과의 갈등과 스트레스라는 제반 가족적 조건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가족분거는 다세대간 가족관계 대처전략으로 드러난다. 또한 분거가족의 사회 심리적 기제는 바로 투사와 체면 그리고 동조이며 그 결과로 공적 영역이 사사화(私事化)되고 가족적 결과로서 사적 영역이 도구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러기엄마로 살기’에 관한 이 질적 연구는 기러기엄마의 생활실태에 대한 양적 연구와 달

1) 기러기가족과 관련된 선행연구 중 첫 번째 범주와 두 번째 범주의 연구들에 관한 개괄적 소개는 연구자의 이전 연구(김선미, 2007:173-174)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이 연구와 관련된 세 번째 범주를 주로 언급하였다.

리 많은 수의 기러기엄마들을 보편적으로 다루지는 못 하지만 기러기엄마들의 일상생활이 가지는 맥락의 특수성과 총체성의 측면을 더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질적 연구이지만 어머니를 가족에 대한 제보자로서 자리매김 선행 연구와 달리 어머니가 연구의 중심이 되며 당사자의 경험과 해석이 연구의 우선순위가 되는 점에서 차별될 것이다. 기러기엄마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연구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 기러기엄마가 된 과정 살아가는 과정 향후의 전망을 포괄하는 방대한 자료로부터, 현지에서 생활시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에 관한 자료들을 선별해 내서 집중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대상 측면에서나 연구주제 측면에서 소외되기 쉬운 ‘기혼여성이면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일상적 경험’을 다루어 비교적 소상히 보고하는 일종의 인류학적 보고서 혹은 문화기술지(ethnography)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그에 따라 이 연구는 가족생활의 핵심에 있는 기혼여성의 일상적 경험을 다루는 한편 또 여성의 경험을 특수화하고 그 경험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여성주의를 반영하는 지점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연구과정 및 기러기엄마들의 특성

1. 연구방법과 연구과정

이 연구는 2000년대 초반을 살아가는 한국인

과 그 가족의 삶이라는 역사성을 반영하는 연구로서, 그리고 한국 가족의 하위문화를 이루는 기러기가족 속에 있는 구체적 개인의 생활사에 대한 연구로서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전체성을 다루는 연구²⁾로서 질적인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기러기엄마들은 자신의 삶의 내용과 경험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을 심층면접을 통해 연구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중요한 연구의 참여자가 되었다. 연구자는 2007년 2월부터 2008년 1월 초까지 약 1년에 걸쳐 모두 열 네 명의 기러기엄마를 만나 보았다. 연구자가 현지 연구를 위해 거점으로 삼았던 텍사스 주의 어스틴에서 선정한 다섯 명은 총 1년에 걸쳐 간격을 두고 2회 면접하였고 1년 동안 가까이에서 참여관찰도 하였다. 뉴욕의 이재현씨는 처음 방문시 1회 면접을 하고, 다시 재방문하여 2회 면접을 하였으나 뉴욕의 나머지 네 명과 캘리포니아의 네 명은 모두 1회 면접하였다. 어스틴에서의 1차 면접의 완결, 그리고 부분적인 2차 면접의 실시로 수정 보완된 질문들을 가지고, 캘리포니아 지역과 뉴욕지역에서 면접을 실시하여 제한적인 면접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모집단을 전혀 알 수 없는 기러기엄마들에 대해 알음알음으로 소개받아 접근하였는데, 최대한 포괄적인 질문들을 얻고 또 면접하면서 대조 분석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가능하면 자녀의 학년이나 미국에 온 시기 등이 차이 나는 대상자로 번갈아가면서 면접하였다.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여 가장 다양한 연구대상에 접근할 수 있었던 어스틴에서는 한국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 학교를 선택한 경우로부터 한국 엄

2) 생활세계에의 관심 전환 혹은 일상생활의 연구 주제화는 언제나 방법론에 대한 반성과 관련이 깊다. 아리에스젠(1998)이 현대 사회학의 방법론을 반성한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학이 역사적 시각을 결여하고 있고 둘째, 구체적 개인의 생활사 연구가 부재하며, 셋째 구체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전체성을 다루는 문제를 상실하였다. 한 편 가정생활이라는 일상성의 영역을 연구해온 가정학분야에서는 오히려 그 일상생활을 보다 잘 다루기 위한 방법론적 외연의 확장선상에서 질적 방법론의 적용(김선미, 2006)을 모색해왔다. 그 예로 대한가정학회는 2006년에 일상생활 일상성 생활과학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마들이 몰리는 학군에 있는 엄마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연구대상을 연구자가 직접 선별하여 결정할 수 있었다.

그와 반대로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는 제한된 기간 동안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면접해야 했으므로 대상의 선별에 있어서 소개해주는 사람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의지하였다. 뉴욕의 기러기엄마인 연구자의 친구는 연구취지를 이해하면서 자처하여 제보자가 되었으며, “기러기엄마를 연구했다고 하면 어스틴 같은 촌이 아닌 그래도 한국 엄마들이 다들 와 보고 싶어 하는 대도시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기러기엄마들 가운데 연구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5개월 후에 연구를 위하여 일주일간 다시 방문하였다. 이와 같이 이재현씨를 만난 것이 연구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는데, 이재현씨의 제보는 기러기엄마들이 선호하는 곳이 따로 있으며 그 때문에 그러한 도시에 기러기엄마들이 몰려든다는 것이다. 그러한 도시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점이 연구자의 관심을 촉발하였다.

그 후 연구현장에 기러기엄마들이 동경한다는 동부지역으로 뉴욕을 포함했으며 서부지역의 캘리포니아지역 도시들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연구자에게 주어진 1년이라는 제한된 기간 안에 연구를 종료하고자 비교적 단기간에 면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한국인 학원원장으로부터 두 사람, 그리고 한국학생들의 유학거점이 되는 교회-미국현지인들이 주중을 이루지만 한국교회와도 관련되어 있고 사립 고등학교를 직접운영하고 있음-로부터 두 사람을 소개받았다.

연구과정을 보면, 면접현장에서 허락을 얻은 후 자료를 녹음기로 수집하면서 연구노트를 작성하였고, 면접 당일 즉시 개인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시 다음 면접과제에 반영하였다. 초기

에 어스틴에서의 1차 면접은 질문을 보다 섬세하게 다듬는데 활용되었다. 모든 심층면접 자료는 전사하였으며,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비교 분석을 거쳐 Walcott(1994)가 발전시킨 자료변형의 세 가지 측면 즉 기술과 분석 그리고 해석(Creswell, 1998:188)을 포함시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성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기러기엄마의 일상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를 산출하였다. 거주지역과 집의 선택, 생활시간은 주로 연대기를 따라 기술하였으며,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재편성에 대해서는 Spradley의 나선형 자료 분석 절차(Creswell, 1998:180, 그림 8-1)를 따라 패턴화된 규칙을 찾아내었다. 분석을 서술하는 부분과 끝의 논의 부분에서 연구자의 시각으로 자료로부터 추론하여 끌어낼 수 있는 점 또는 연구자가 내린 해석의 구조를 제공하는 이론으로 되돌아갔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기러기엄마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최대한 개방적인 질문들을 하였는데,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지, 여기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물었으며, 이야기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조적 질문과 반대 질문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제보자마다 일주일간의 시간표와 재정적인 지출부분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도 등은 면접 후 함께 작성하였다.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전체 자료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경험과 해석의 부분들을 개인별 자료에서 추출하고 다시 그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2. 기러기엄마들의 특성

정보가 대략 포화되는 시점에서 심층면접을 중단한 결과 제보자들은 모두 열 네 명이 되었으며, 1-2년 정기체류형 기러기엄마로 대학의

시간강사인 장진경씨와 초등학교의 교사인 이미영씨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두가 결혼 전 혹은 결혼 후 간헐적으로 취업한 적은 있지만 미국으로 올 당시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전업주부들이었다. 제보자들은 학생비자, 영주권, 취업비자, 방문학자비자 그리고 관광비자의 형태로 현재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이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들이 미국에 온 목표를 지속적으로 수정해 가면서 신분의 변경을 거친 결과이기도 하다. 연구에 포함된 기러기엄마들의 체류기간은 최소 6개월 동안부터 최대 6년까지 이다. 경제력이 넉넉하거나 미국에서 자녀를 대학까지 보낼 작정으로 기러기가족이 된 경우에는 집을 구매하였고, 그

〈표 1〉 제보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이름(연령), 주(State)	유형	자녀성별 / 학년	체류기간
김승희(44), CA	이민주도형 기러기엄마	아들 / 9학년 딸 / 5학년 아들 / 3학년	1년째
이혜림(43), CA	의도하지 않은 기러기엄마	아들 / 9학년	3년째
오미경(46), CA	귀국후 재출국형 기러기엄마	아들 / 12학년 딸 / 8학년	외국 10년, 한국 3년, 미국 6년째
박임순(43), CA	의도하지 않은 기러기엄마	아들 / 11학년 아들 / 10학년	4년째
장진경(48), TX	정기체류형 기러기엄마	딸 / 6학년	1년째
고선희(44), TX	정기체류형 기러기엄마	딸 / 9학년 딸 / 6학년	1년째
이미영(37), TX	정기체류형 기러기엄마	아들 / 5학년 딸 / 유치원	1년째
차영주(44), TX	정기체류형 기러기엄마	딸 / 9학년 딸 / 7학년 딸 / 2학년	5년째
김현아(38), TX	정기체류형 기러기엄마	아들 / 3학년 딸 / 1학년	1년째
이재현(46), NY	귀국후 재출국형 기러기엄마	딸 / 11학년 아들 / 9학년	외국 3년, 한국 1년, 미국 2년째
김희선(44), NY	이민주도형 기러기엄마	딸 / 11학년 딸 / 10학년	4년째
서정명(42), NY	귀국후 재출국형 기러기엄마	아들 / 9학년	외국 3년, 미국 1년째
기세란(44), NY	의도하지 않은 기러기엄마	딸 / 12학년 아들 / 11학년	큰 애 홈스테이 2년, 둘째와 渡美, 2년째
오형님(49), NY	의도하지 않은 기러기엄마	딸/ 대4 한국거주 딸/ 12학년	둘째 애 홈스테이, 3년째에 미입국

* 제보자들은 모두 가명 처리하였으며, 익명성은 보장하되 논문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최소한의 정보만 제시함.

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 아파트를 임대하여 살고 있다. 이 논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표 1>에 간략하게 기러기엄마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요약해놓았다³⁾.

이들이 기러기엄마가 된 과정을 보면, 일정한 자녀를 교육한 후에 귀국하겠다는 정기(定期)체류형은 장진경씨와 고선희씨 이미영씨와 차영주씨 김현아씨이다. 가족과 함께 외국 거주 후 귀국하였으나 한국 상황에 부적응하여 재출국한 기러기엄마는 오미경씨 이재현씨 그리고 서정명씨이다. 가족의 이민과정에서 먼저 자녀들을 이끌고 미국에 온 기러기엄마도 있는데, 김승희씨와 김희선씨가 그 예이다. 또한 의도하지 않게 기러기엄마가 된 경우도 있는데, 이혜림씨와 오형님씨 기세란씨 모두 자녀가 혼자가는 조기유학을 시도하다가 뒤따라온 경우이다. 이들은 모두 6개월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로 도미하였다. 박임순씨도 온 가족이 미국에 살아보자고 함께 왔다가 귀국한 남편이 비자문제가 잘못되어 입국하지 못하고 혼자 남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로 마지막 범주에 속한다.

기러기가족의 삶을 선택하고 시작해 가는 과정에서 자녀들은 어머니들로 하여금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첫째, 학원에 다니기 싫다고 불평하거나 한숨을 쉬는 것을 보고, 둘째, 시민권을 가진 자녀가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에서 살겠다고 하는 경우, 셋째, 다른 나라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느슨한 태도로 변화된 자녀가 한국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한국학교에서 수월성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넷째, ‘홀로유학’을 위해 홈스테이 하는 자녀가 적절한 보호자의 역할을 필요로 할 때 각각 어머니들은 기러기엄마가 되기로 작정하였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의 미국행을 주도하거나 독려하기도 하고, 드문 경우이지만 한국과 현지를 오가는 사업을 벌여 가족이 체류할 수 있는 사업 비자를 마련하기도 하고, 아내가 주도하는 미국행에서 서류작업만을 대행하기도 하였다. 기러기가족의 국제적 성별분업은 남편들이 전적으로 경제적 뒷받침을 하는 구도로서, 미국에서의 자녀교육 혹은 기러기가족 삶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영어를 잘 못 해서 받는 사회에서의 불이익-를 제시한다. 남편유학에 동반한 경험은 아내로 하여금 미국교육의 장점을 한국교육과 비교하게 하거나 미국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준다. 또 자녀에게 시민권을 가지게 하여 보다 쉽게 미국행을 선택하게 한다. 또한 차영주씨의 경우를 보면, “자녀를 위한 희생의 대가도 별로 없고, 가정이 파탄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만류하는 시택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남편 자신이 이러한 결정을 직접 주도했다라고 함으로써 아내를 위한 방패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기러기엄마의 역할의 핵심에는 성별분업이 놓여 있다. 제보자들의 가족은 남편은 돈 벌이, 아내는 살림이라는 뚜렷한 성별분업을 오랫동안 세워왔기 때문에 기러기가족의 삶을 보다 쉽게 선택하였다. “어차피 내 일 못 할 바에는 전업주부로서 희생하자. 애들 키울 때 애들에게 희생해주자(차영주).” “나는 애 키우는데 익숙해 있다. 전문직 남편이 시간이 없으니 혼자 다 했다. 나는 교육에 미쳤다. 다른 것에 미친 것 보다 낫지 않나?(김현아)” “남편이 돌아가서 돈을 벌어야 했고, 애들은 돌아가서 적응하지 못 하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애들은 내가 여기에서 돌봐야했다(오미경).”

그런가하면, 기러기엄마로서의 삶을 주체적으

3) 연구의 제보자인 기러기엄마들의 연령과 신분유지방법 그리고 자녀의 수와 자녀의 성별 및 주거형태와 거주기간 취업경험유무 등의 소개는 이전 논문(김선미, 2007:176)에 상세히 설명하였다. 물론 개인적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모두 풀어서 적어 놓았다. 여기에서는 일상생활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적었다.

로 선택하지 않았으나 결국 기러기엄마가 된 경우에도 모성역할의 우위가 드러났다. 자녀를 사립 기숙학교로 보내려다가 동행한 이해림씨의 경우나 홈스테이를 통하여 2-3년 동안 ‘홀로 유학’을 시켜오다가 미국의 자녀 곁으로 온 기세란씨와 오형남씨는 처음에는 자녀와 함께 보다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을 선택했지만, 결국 자녀의 학습이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기러기엄마가 되었다.

그러나 자녀를 동반한 미국행 속에서 순전히 개인에게 속한 이유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차영주씨의 ‘떠나고 싶은 것에 대한 끝없는 동경’, 고선희씨의 ‘해외선교에 대한 꿈의 성취’ 같은 것이 그러하다.

III. 일상생활의 구성

일상생활의 세계는 시공간을 따라, 시공간 속에서 매일 매일의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실체이다. 시간과 공간은 일상적 삶의 형식을 틀 지우는 가장 원초적인 조건으로서 인간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바로 시간과 공간이다. 이 절에서는 먼저 기러기엄마들의 일상생활의 기초인 공간과 시간의 구성의 측면을 살펴보자.

1. 지역과 주거의 선택과 일상생활

지역 선택 문제를 살펴보면, 교육을 주요 목적으로 삼은 경우, 도시와 학군을 주도면밀하게 따져 한국인이 많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지역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이미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한국 엄마들에 의해 평가가 끝난 좋은 학교를 찾기가 쉽고, 또 정보획득과 문화적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한국인 거주 지역을 찾기도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에는 미국의 대학입시 준비용 한국식 학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기러기엄마가 일상생활을 구축할 때 복사할 수 있는 각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러기엄마들에 대한 부정적 담론-외도나 과소비 등에 대한-도 많이 유포되어 있다. 특히 정기체류형 기러기엄마들에게 지리적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한국인이 얼마나 있느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인은 기러기엄마에게 유일한 가용자원이면서 또한 자녀의 영어습득을 방해하거나 “저질 한국문화가 침투해 오는” 일종의 회피집단이기도 하였다.

단지 친구나 친지가 있다는 심리적 위안을 위해 특정 지역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지만 친구나 친지 가까이로 온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의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같은 처지로 함께 온 친구와 서로 돕고 의존하는 서정명씨를 제외하고는 “그들도 힘들기 때문에” 혹은 “영어도 못하고 거의 도움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도미 후 실제로 가까이 지내지 않았다. 유학중인 동생을 의지해서 온 김현아씨도 “아예 처음부터 아무런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고 동생에게 거절당하기도 하고, 박임순씨나 김희선씨처럼 친지를 한 동안 의지하다가 불편함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겨서 그들로부터 분리해나가기도 하였다.

이제 주거 형태의 선택 문제를 살펴보자.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살겠다고 결정하게 된 비교적 넉넉한 가족은 타운하우스를 구매하였고, 잠정적으로 거주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아파트를 임대하여 살고 있다. 생활비에 민감한 기러기가족으로서 주거비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체보자들 가운데 경제사정이 가장 열악한 고선희씨는 1침실 1욕실(one bed one bath)에서 두 딸과 엄마가 살고 있으며, 절약이 몸에 배어 있을 뿐 아니라 현재는 고소득이지만 조기퇴직이야기가 오고가는 남편을 둔 차영주씨는 보다 허름한 집을 선택하여 무려 월 500달러씩을 아낄 수 있었다고 자신의

선택을 자랑스러워한다.

공립학교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와 관련되므로 기러기엄마들은 학군을 고려하여 집을 결정하였다. 그 예로 이미영씨는 동생이 살고 있던 기숙사로 이사 왔지만, 결국 학군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내 이사하였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도미를 통해 새로운 신분을 얻고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옮긴 기세란씨네 경우도, 동생네와 함께 살다가 주거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독립한 김희선씨도, 좋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이사했다. 이사의 결정은 많은 심리적 육체적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또한 주택의 구매나 임대를 위한 계약, 수리와 보수 등이 미국인을 상대해야하는 가장 힘든 일로 꼽힌다. 그러나 일단 겪어내고 나면 한국에서는 남편이 하던 큰일을 자신이 해 낸데 대해 자신감을 얻어 나가는 경험이 되기도 한다.

2. 생활시간 활용의 특성

기러기엄마들의 생활시간에서 가장 큰 축은 매일·매주·매월 그리고 일 년 동안 자녀의 학교시간표이다. 일주일간의 생활시간에 대한 묘사를 보면, 자녀 등교준비 및 방과 후 활동 혹은 사교육활동 보조 그리고 시장보기와 청소, 설거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 대중교통이 미약한 미국에서 자녀들 차 태워 나르기가 가장 힘든 일에 속한다. 특히 유사시 대체할 다른 성인이 없다는 것이 기러기엄마들의 긴장감⁴⁾을 유발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잠시 쉬는 몸이 약한 엄마도 있고, 체육활동이나 한국어교육에 자녀를 보내는 엄마도 있다.

연간 생활시간을 보면, 한국에 가는 일 혹은 한국에서 남편이 와서 함께 여행하는 일 이 연

중행사로 포함된다. 한국에 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긴 여름방학마다 한국에 꼬박꼬박 자녀들과 가는 두 가족이 있는데, 차영주씨 가족은 5년 기한 비자가 만료되면 귀국하여 한국학교에 다시 자녀들을 적응시켜야할 입장이며, 이재현씨 가족은 대학졸업 후 한국에서 활동할 가능성·미국에서의 실패를 대비함-을 염두에 두고 있다. 두 가족 모두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능통한 영어 잘 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이 두 가족 가운데 한 가족은 아버지와 자녀들의 긴밀한 관계를 위해, 다른 한 가족은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이러한 생활양식을 선택하지만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란 어렵다고 하며,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또 다시 이러한 생활방식·방학 때마다 귀국하는 것-을 더 고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두 가족 모두 현재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장래에 어떤 보장을 가질 수 있는지 기러기엄마들은 불안감을 보여준다.

자녀의 공립학교 입학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장기적인 체류를 합법화하기 위해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어학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도 중요한 한 축이다. 어학원에 다니는 것은 “영어를 배운다기보다 신분유지가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힘든 일정이다. “이것도 민간 외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요.”부터 “피골이 상접하고 얼굴에 짜증이 가득, 방학 때는 얼굴이 짝 편다.”는 표현은 흥미롭다. 처음에 와서 애가 학교에 가기도 전에 애를 혼자 두고 한 달 동안 어학원을 다녀야 했다는 서정명씨의 경우, 신분유지를 위한 어학원 출석이 기러기엄마에게 얼마나 억압적인가 보여준다. “영어를 배우려고 해도 어학원에는 교사를 제외하고는 미국인이 없으며, 끝나면 애 픽업하러

4) 의도하지 않고 기러기엄마가 된 오미경씨는 오래된 모자가정 생활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러나 두 아이 차 태워나르기는 불가피한 일이며, 대학입시를 앞둔 자녀를 월 1회 1시간 걸리는 인근 도시에 있는 카운슬러에게 데려가야 한다. 오미경씨는 약을 먹고 운전을 하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들었다고 한다.

가기 바쁘고, 또 기러기엄마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물론 어학원에 다니는 것은 다른 의미도 가질 수 있는데 김현아씨에게는 “처음 미국생활에 적응하는 자녀의 학교경험과 엄마의 학교경험을 공유하게 해 주는 역할도 한다.” 그렇지만 이것도 초기에나 그렇지 신분을 유지할 다른 방도를 찾고 싶다는 것이 기러기엄마들의 생각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어학원이 ‘신분유지 장소’를 할 정도로 변형되어 시간이 경과하면 진급하는 체계가 아니라, 반복되는 무체계, 비체계의 특징을 보임으로써 “만날 how are you?만 배울 정도로 타락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더욱 흥미를 잃고 차영주씨는 학원비만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차영주씨는 어학원 등록만 하고, 그 시간에 한국에 있는 남편과 매일 한 시간씩 귀국을 위한 의논도 하고, 자녀와 아버지를 연결하기 위한 이야기를 한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시민권이 있는 자녀를 따라, 혹은 사립학교에 다니면서 홈스테이 하는 자녀를 따라) 관광비자로 와 있거나 사업비자를 가지고 있어 어학원에 다니지 않는 기러기엄마들 가운데 교회활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차 태워 나르는 일은 힘들고 그 외에 갈 곳도 많지 않고 만날 사람도 거의 없어 우울하기까지 하다고 호소하였다.

제보자 가운데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한데도 신분유지를 위해 직장에 다녀야 했던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지금은 영주권을 가지게 된 김희선씨도 한 때는 취업비자로 왔기 때문에, 월 1,500불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3회 출근하여 8시간씩 일을 해야 했다. 한 편, 이혼의 과정으로 나가고 있는 서정명씨는 ‘경제적 독립을 위해’ 그리고 ‘보다 재미있는 삶을 구축하기 위해’ 자신의 감각적 재능을 살려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대행업을 시작하고 있다. 자녀를 돌보면서 병행할 수 있는 일종의 파트타임직업을 시

도하고 있는 것이다.

IV. 타인들과 관계 맺기

“한국인은 안 만나고, 미국인은 못 만나고”
“철저하게 우리 가족만 살고 있는 거야”

사회 자본은 ‘행위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 즉 사회 관계망의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산(Lin, 2001 - 조혜선, 2004:124에서 재인용)’으로 정의된다. 이 절에서는 기러기엄마들이 미국에서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타인들과 맺는 일상적인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관계들로는 재미교포, 다른 기러기엄마, 그리고 미국인들과의 관계가 포함된다. 미국으로 건너와 기러기엄마로 산 후 일상에서 크게 변화된 것은 바로 관계의 폭과 성격이다. 한국에서와 비교할 때, 관계의 폭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새로운 깊은 관계는 형성하기는 어려웠다.

1. 현지 한국인들과 관계 맺기

제보자들의 이야기에서 한국인들은 중요한 자원이면서 또 영어습득과 완전한 미국문화체험의 기회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등장한다. 따라서 한국인을 피해서 이동하지만 다시 한국인 속에 살고 있는 체험이 일반적이다.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잠재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는 현지 한국인들은 기러기엄마들에게 “기러기와 非기러기로” 구별되어 인식된다. 대체로 한국인교포들은 기러기엄마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왜 오시려고 그러세요. 한국이 그래서 망합니다.”라는 말이, 근처 대학의 한국인학생회 홈페이지에 기러기엄마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현지생활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던 김현아씨가 받은 답변이다. 그보다 심한 예를 보면, “어디다 대고 도움을 요청

한 거냐?”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로부터 기러기엄마들에 대한 유학생들의 거부감을 잘 알 수 있다.

기러기엄마들은 현지 한국인들의 민감한 반응과 부정적 편견의 근거가 질서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미국생활에서 받은 차별을 우리에게 돌려준다.”고 이들은 해석하거나 “이민들은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또 겁낸다. 우리가 강하니까.....”라고 분석한다. 또 “젊은 사람들은 예를 낳아보지 못해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 한다.”고 한다. 한국인교포들에게 있어서 이들 경제적으로 넉넉한 기러기엄마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이민 온 교포나 가난한 유학생에게 위화감을 주거나, 넘겨줄 것은 없으면서 “단물만 빨아 먹고 가 버릴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니면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교육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혹은 “심한 경우에 한국인 남자와 외도를 할 수도 있다.”⁵⁾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한국인교포 혹은 유학생과 기러기엄마들 사이에는 소통이 곤란하다. 그 대신에 오히려 반목과 질서가 보편적이어서 기러기엄마로서는 잠재적 자원을 처음부터 상실하는 셈이며 한국인들이 생산해 내는 인터넷상 정보를 활용하는 정도로 약한 일방적 관계만 맺고 있을 뿐이다. 간혹 한국인 유학생이 정기 체류형 기러기엄마의 자녀를 위해 귀국 후 입시준비를 위한 사교육을 하는 경우는 있었다.

소수이긴 했으나 이재현씨나 고선희씨처럼 한국인 교회에 소속한 경우에는 한국인들과 상당한 교류가 가능하였다. 신앙적 교의를 공유한다는 것이 친밀해지는 데 필요한 많은 과정을 건너뛰게 해 주었다. 초기 정착 시에 차와 집과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존할만한 네트워크가 되어 주었다. 또한 자녀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주는 풀(pool)이 되기도 하고, 어머니가 자녀를 자신의 가치에 통합하는 수단이 되어주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낯선 곳에서 이러한 대규모집단은 든든한 심리적 배경이 되어 주었다.

2. 다른 기러기엄마들과 관계 맺기

기러기엄마들 사이에서 연구자가 연구계획서를 쓰면서 기대했던 바, 기러기엄마라는 삶의 조건 그 자체로 인한 공감대 형성이나 공동체 형성 혹은 깊은 사귀는 많지 않았다. 김현아씨는 어학원에서의 회화를 통해, 다른 기러기엄마의 일상을 짐작하고 평가하기를 “기러기엄마인데 자녀교육은 뒷전이고 주말에 골프를 치고 술 먹는다더라”고 하면서 자신을 다른 기러기엄마와 구별해 냈다. 여기에서 기러기엄마들 간 바람직한 기러기엄마의 생활에 대한 어떤 각본이 존재하며 또 그 각본에 따른 상호감시가 그들 간의 협동의 가능성을 추월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또한, 엄마들끼리 모이는 것에 대하여 한국에서부터 형성된 부정적 평가도 작용하였다. “모여 봤자 남편 흥, 시댁 흥, 자식 자랑, 쇼핑, 비생산적이다” 혹은 서로의 기원을 알지 못 하는데서 오는 불안감이나 반대로 기원을 알아낸다면 거기에서 매겨질 서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국생활의 힘겨움에서 오는 갈등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려는 것이 작용하는 것 같다. 이와 같이 기러기엄마들 사이에서 강한 결속력이 있는 공동체를 발견하지는 못 했지만 드물게 몇 몇 기러기엄마가 친밀감을 형성하고 공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이 경우는 다른 매개체가 있었다. 같은 시기에 함께 미국에 와서 기러기엄마가 된 서정명씨와 그 친구는 한국에서 쌓은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생활에서 의존관

5) “뉴욕의 기러기엄마 두 가정을 파괴하다(면접하는 동안 한 제보자가 전해 준 기사 제목임)”와 같은 기사 제목은 한국인 사회가 기러기엄마들에 대해 가지는 태도의 반영이기도 하고 사실이기도 하다.

계를 지속하였다. 자녀의 ESL 학부형으로 만나 같은 교회에 다니게 된 이재현씨와 서정명씨, 또 학부형으로 만나 남편과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을 만들게 된 김희선씨와 이재현씨는 종교의 힘을 빌어 공존하고 있다.

3. 미국인들과 관계 맺기

기러기엄마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미국인들 가운데에서는 생활을 위해 들르는 상점이나 관공서에서의 일회적인 접촉을 제외한다면, 자녀들의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가정교사 및 자신이 어학원을 다닐 경우 어학원의 교사와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

교회를 다니는 경우 기러기엄마들은 대부분 한국인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미국인과 접할 기회가 없다. 장진경씨는 각 지방에서 하나의 입장으로 모이는 가톨릭 성당을 나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미국인과 교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아무도 장진경씨에게 다가오지 않았으며 장진경씨도 어느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못 했다고 한다.

기러기엄마들은 누구나 미국인을 사귀어야 영어가 늘고 미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현아씨는 최대한 한국인이 없는 곳까지 멀리 가서 방과 후 활동을 시킨다. 학교 이외에서 미국인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길 즉, 엄마가 통제할 수 있는 미국인과의 관계는 가정교사와의 관계가 고작인 것 같다. “튜터 아니었으면 제가 한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모를 뻔 했더니깐요.”(김현아) 대학 영어과 교수인 장진경씨의 남편은 장진경씨로 하여금 “딸에게 1년 동안 최대한 미국인들 만나게 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그러나 동일한 도시에서 10여 년간 유학까지 한 장진경씨이지만 미국인을

한 명도 알지 못 한다⁶⁾. 이로부터 보통 기러기엄마이 미국인을 알고 지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한편, 기러기엄마들은 인종차별을 경험한 것과, 냉담한 미국인들에게 느끼는 혐오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기세란씨는 자녀가 학교친구와 분쟁이 있었을 때 학교의 관계자로부터 인종차별적 조치를 경험했다. 또한 서정명씨는 “미국인들이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또 무슨 잘못을 했나”하는 근거 없는 죄의식이 든다고 한다. 서정명씨는 뉴질랜드 거주 경험이 있는데 그 곳과 달리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의식하고 있다. 김현아씨는 학부모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받으며, 본인이 작아지는 것을 체험하였다고 한다.

비자발적으로 기러기엄마의 삶을 살고 있는 오미경씨의 경우에는 총 16년을 미국에 살았지만 결국 미국인을 피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찌면 자녀들은 미국문화에 적응해갈 수도 있으나 어머니는 자국문화에 남아 있음으로써 미국사회와 분리되는 결과 더 심하면 그 자녀들과도 격리되는 기러기엄마의 향후 삶에 대한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사실상 미국인을 사귀고 싶어도 가장 큰 제약은 언어이다. 차영주씨는 한국에서부터 소속한 교회가 현지에서 미국인을 포함하는 국제적인 성격의 교회로서 300-400명이 회원이며 주중에 희망하면 3-4회 소그룹모임에 참석하여 미국인을 사귄 수 있다. 그러나 차영주씨는 미국인 성도와 “말이 안 되니까 교체 없이 좀 피한다.”고 한다. 제보자 가운데 영문과 출신이 셋이나 있지만, 모두 전공을 숨기는 이유는 “대학 다닐 때 전공이 영문학이었지만 회화 한 번 안 해 봤고, 여기 와서 영어 한 마디 못 하고 아이들은 척 웃으며, 전화 오면 무조건 잘못 걸

6) 장진경씨는 미국인들과 교류가 비교적 빈번한 현지 미국 교회 - 가톨릭교회와 같이 한 지방에 한 교회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 에 나가던 연구자에게 부탁하여 미국인을 만나고 또 미국인 가정을 방문하고 미국인의 결혼식 피로연에 참가하였는데, 그로 인해 남편에게 장진경씨는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있다고 끊는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선행 연구(조은, 2004)에서 밝힌바 ‘영어되는 엄마와 돈 되는 아빠’라는 가족조건은 다소 과장된 느낌이 든다. 오히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엄마 혹은 영어를 매개로 삼아 신분유지를 해 가면서 자녀를 유학시킬 수 있는 엄마’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다.

언어장벽이 미국인을 접하고 미국의 주류문화를 심층적으로 접할 기회가 차단하여 또 다시 그 때문에 언어습득 기회가 상실되고 언어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악순환을 겪는다. 김승희씨는 미국사회의 주류문화를 접하기 위해 자신은 반드시 취업을 하겠다고 버르고 있다. 소위 생산적인 노동을 통해 미국인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대부분의 기러기엄마로서는 미국문화를 흡수하고 체화할 길은 극도로 제한된 것 같다. 따라서 모든 기러기엄마들은 설령 남편과 결별하더라도, 애들을 돌볼 만큼 돌봐준 후에 귀국하겠다고 한다.

V. 가족들과 다시 관계 맺기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기러기엄마가 되면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지 못 하는 남편과의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달라지고, 다른 나라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응해야 하는 엄마와 자녀들 간의 관계도 달라진다. 한국에서는 많은 물리적 심리적 에너지를 차지하던 시댁이나 친정과의 관계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댁과 친정과의 이러한 관계 감소는 또한 의지처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1. 한국에 있는 남편과의 관계

기러기엄마들이 남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는 전화, 화상 채팅 그리고 방학을 이용하거나

명절휴가를 이용한 상호방문 및 여행 - 단기간에 집약적인 공유·공감을 위한 체험- 이 있고, 또 사업차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초기 정착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남편이 전화하는 것도 귀찮다(이미영)”고 한다. 그리고 “가끔 만나는 것은 새로운 적응의 문제 - 정서적 교란, 일상생활 리듬의 상실”을 유발하였다. 밤과 낮이 바뀌는 시간차이는 전화 대화시 긴장의 상이성을 유발하여 오해와 서운함을 산출하기 쉬웠다. 그리고 후기로 갈수록 아무리 노력하여도 “미운 정 쌓을 기회가 줄고, 대화도 구체성이 결여된다.(박임순)”고 한다.

남편과의 관계를 볼 때, 많은 경우에 기러기 가족으로 사는 것이 전반적인 가족생애주기에서 과도기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당분간 별거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김순형씨네처럼 의처증으로 인하여 기러기엄마가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서정명씨네처럼 또 부부간 왕래가 줄고 서운함이 쌓여서 영원한 별거 끝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기러기가족의 형태를 종결짓고 남편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경우, 혹은 이와 달리 나머지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남편이 이주하기위해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생활에 대한 남편의 동경 혹은 미국문화에 낯선 남편의 주저함 그리고 미국에서 남편이 취업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한국에서의 별이 가 든든한가가 가족이 한국 혹은 미국으로 합하는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

제보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필연적으로 남편과 관계 변화 혹은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국제적 성별분업의 강화로 인해 남편과 아내가 모두 고생하는 구조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연민이 생겨, “자녀 때문에 작아졌던 남편의 존재가 더 커지고 있다.”고도 하고 “주식으로 곤란을 겪게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소통이 끊긴 남편과 별거하기 위해 미국에 왔지만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다.”고도 하였다. “성관계가 없는 것이 우리 부부의 문제라고 생각했었지만, 점점 성이 없는 부부관계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적응중이다.” 또한 미국생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남편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고 할 수 있게 된 아내는 남편에 대해 이전보다 교섭력이 증가하였다. 기러기엄마의 체험을 분석해 볼 때, 그 결과로 열등했던 아내의 지위가 향상되기도 했는데, 보다 분명한 것은 심리적으로 의존적이었던 아내가 독립적이 되었다는 점이다.

또 하나 남편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자주 떠오르는 주제가 바로 ‘외도의 가능성’이었고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입장의 정리 그리고 확인 작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기러기엄마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외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있다. “서로 자기 자신 보호하리라 믿는다”, “기러기생활 아니라도 외도할 사람은 한다”, “남편의 경우, 지속적인 관계만 아니면 허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 남편은 외도 무능력자이고, 교회생활이 지켜준다”, “다 한국에서 못 살아서 여기 왔을 텐데, 내 남편만한 사람도 없다. 외도상대가 없다.” 그러나 기러기엄마들은 자신은 오해받지 않도록 처신을 잘 해야 하는 막중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인 학부모와 어울려야 할 때에도, 한국 유학생 부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때에도 늘 의식하는 부분은 바로 누군가 내가 외도했다고 보고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2. 미국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자녀의 교육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방임형으로 키운다.”, “나는 환경만 만들어주지 교육 매니저(manager)가 아니다.” 에서부터 “애의

사회적·경제적 성공이 네 삶의 성공이고 노후 보장이다”, “고품질 저가 사교육 최대한 하기”, “나는 내 아이의 유일한 전문가”라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반영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어머니로서의 역할 혹은 태도에 대한 다양한 자기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자기 정의에 따라 사교육 안배(영어, 작문, 한글교육, 귀국 후 준비수학 등 교과과외, 예능과 체능) 그리고 그에 따른 생활시간의 구조나 관심이 강한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방임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을 보여 주었다.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의 학습지도(영어 습득 정도, 대학진학위한 SAT 준비, 미술전공위한 포트폴리오제작 등)와 정서적 돌봄(사춘기 아들의 경우, 마약과 술 하는지 감독, 딸의 경우 사귀는 친구집단 통제)이 주축이 되고 있다.

자녀의 어떤 부분을 돌봐야하는지는 홈스테이를 시키다 기러기엄마로 나선 기세란씨와 오형남씨의 경우를 보면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대중교통이 없으므로 홈스테이는 아이의 자유를 제한한다. 친구 집에 가려는 애와 교회에 가려는 주인의 욕구가 상충할 때, 아이를 차 태워다 주기 위해 왔다.” “때에 맞는 식사 즉 아이의 요구에 맞게 때를 맞추고 좋아하는 메뉴의 식사를 해 내기 위해 왔다. 애가 아플 때 따로 먹고 싶은 것이 있고 또 먹고 싶은 때가 있다. 엄마가 아니면 해 줄 수 없다.” “나는 정서적 안정을 돌보기 위해 왔다.” 이러한 부분은 기숙학교에 보내려다 마지막 순간에 동행한 이혜림씨의 경우도 동일하다. “학습효과와 더불어 인성적 안정을 위해 나는 기러기엄마로 나섰다.” 오형남씨는 직접 미국에 와서 비로소 딸에게 영어 튜터도 구해주고, 플룻 레슨도 시켰다고 한다. 오형남씨는 자녀와 함께 자녀의 하숙집에 1년 동안 머물면서 하숙집 주인 외식도 해 주고 편의도 봐주고(가사노동 거들기) 옷도 사줘 가면서 주인에게 차 태워주기를 부탁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어머니의 동반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 혼자 조기유학을 가기로 결정하더라도 그 가운데 일부는 결국 기러기엄마의 동행을 추동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 아이가 자라고 또 영어가 늘면, 자녀들과 관계가 일부 전도되었다. 자녀가 성장하면 힘이 세져서 시장 본 물건을 들어주는 등 물리적인 도움도 주고, 차영주씨네처럼 언어 중계도 하고, 기세란씨네처럼 여행지안내 그리고 엄마에 대한 든든한 보호자로서 혹은 어린 동생을 돌봐주는 일을 하게 된다. 특히 엄마의 영어는 6개월이 지나면 아이들의 영어에 뒤처지게 되고 대부분의 엄마가 자녀로부터 언어 중계를 기대하게 된다. 이는 선행 이민과 가족연구⁷⁾에서 미국 내 이민가족 안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언급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어 습득이나 문화변용의 속도차이로 인하여 자녀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핀잔이나 무안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 기러기엄마들의 체험이다.

남자아이들을 키우는 기러기엄마들은 사춘기에 거센 반항을 경험하기도 하며 미국사회의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비행-마약의 사용과 같은-의 가능성에 대해 보다 민감하였으나 통제력이 없이 무기력하다고 보고 하였다. 이 때에는 남편과 사이가 벌어지거나 뜯혀진 경우에도 아이에 대한 남편의 모델링 그리고 다스림을 절실하게 느낀다고 한다. 남자아이들과 반대로 여자아이들의 경우에 단순한 반항이나 말대

꾸를 제외하고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지점이 바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에 관한 관심을 다루는 문제이다. 장기적으로 체류하게 되는 경우 고등학생 자녀들은 인종차별주의의 내면화로 한국계 미국인(Korean-American)이라는 소위 하이픈(-)이 달린 정체감을 싫어하였다. 그들은 한국계 미국인이 아닌 다만 미국인(American)이 되고자 하는 ‘동화’에 대한 희망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언급한 서정명씨는 자녀가 여전히 한국계 미국인(Korean American)의 정체감을 가지기를 주장하였는데 자녀가 미국문화에 동화되기 보다는 ‘통합’⁸⁾의 형태로 적응하기를 희망하였다. 자녀들은 갈수록 백인들의 눈을 통해 자신 그리고 다른 인종을 보게 되며(social mirroring), 차츰 인종차별주의를 내면화해가며 자신을 주변인으로 자리 매겨 간다는 것이 어머니들의 안타까운 보고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의 정체감에 대한 희구에 있어서의 상반된 의견 때문에 한국에서라면 없었을 상호간 갈등 부모의 무력감 혹은 자녀나 부모 어느 한 쪽의 원망의 소지를 내포하게 된다. 차영주씨는 처음부터 약속했던 5년이 다 되었고 또 남편이 미국으로 올 수도 없고 더 이상 이러한 생활을 견디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러한 이민으로서의 주변적 지위를 거부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산지 5년 된 아이들을 귀국시키려 하고 있다. 차영주씨는 대체로 딸들에 대해 여전

7) 이와 같은 언어중계(language brokering)는 미국에 있는 이민가족의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으로 이민가족의 자녀문제를 논할 때 언제나 중요하게 다루어진다.(이민가족 자녀의 언어중계문제에 관한 논문으로 Orellana, M.F., Dörnyei, L., & Pulido, L., 2003; Chao, R. K., 2006; Morales, A., 2005를 참조) 자녀의 언어중계는 자녀로 하여금 일찍 성인의 세계를 접하게 하기도 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교섭력을 가지게도 하지만 자신의 성적에 대한 상담을 중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학교사회에서 어떻게 제3자인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상담자를 학부모와의 상담에서 중계자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증시되고 있다.

8) 이민자들의 문화적응(acclturation)이란 새 문화에 대하여 적응하는 정도, 개인이 호스트국가의 문화를 배우는 정도를 의미한다. Berry(2005)는 기원국가와 호스트국가의 영향력을 반영하여 네가지 적응형태를 말하기를 호스트 국가의 영향력이 크면 동화(assimilation), 기원국의 소수문화의 지배력이 크면 분리(separation), 두 문화의 지배력이 동일하게 강하면 통합(integration), 약하면 주변화(marginalization)로 각각 명명하였다.

히 통제력을 행사하는 편이었는데 그 딸들이 통제적인 어머니에 대해 저항하는 장면은 자주 목격되었다.

VI. 논의 : 기러기엄마의 일상생활의 특성과 전망

한국의 엄마들이 느끼는 복합적인 문제들은 계속해서 기러기가족의 형태를 증가시킬 것이다. 공교육체계의 붕괴와 사교육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라는 교육문제와, 부부중심핵가족문화의 구축 실패 즉 부부관계보다는 부모자녀의 수직적 관계중심의 가족문화 그리고 가부장적 문화풍토의 유지로 인한 기혼여성의 부담 특히 그 여성이 전업주부일 경우 더욱 가중되는 시댁의 압력과 같은 가족문제, 그리고 가족을 떠나 달리 개인적인 성취감을 느끼게 해 주지 못하는 한국의 여성 현실⁹⁾이 함께 변경되지 않는다면 가족생활에서 오는 어려움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하는 한국의 중산층 전업주부들이 주도하는 기러기가족은 당분간 증가할 이유를 가질 것이다.

특히 교육적 성취 특히 영어 자본과 미국에서의 교육적 성취를 능력의 척도로서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족들은 끊임없이 기러기가족의 삶의 형태를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할 것이다. 교육이라는 문화자본이 희소가치를 가질수록 문화적 자본의 획득에 시간, 정신, 감정을 투자하며 사회적 재생산의 최전선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어머니의 사회적 문화적 역할은 계급 재생산에서 중요한 변수로(조혜선, 2004:127)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가족의 주요 사업이 되었으며(손승영, 2006: 259) 가족은 공부공동체로(이득재, 2001: 136;

최양숙, 2006:91에서 재인용) 도구화되어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 세계화 속에서 국제적 성별 분업을 불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여성들이 있다. 또한 가족분거는 일종의 다세대간 가족의 대처전략이다. 전업주부의 인식년욕구의 발로,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에서 초래된 일종의 전략(최양숙, 2008; 김선미, 2007)이 되고 있다.

기러기엄마의 일상생활을 살펴볼 때,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적 가사노동의 내용은 한국에서와 대동소이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러기엄마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국에서보다 더욱 제한적이고 열등한 것이 되어 그들의 인적 자원을 최적화하지 못하게 된 반면에 새 사회에 자녀를 적응시키고 교육시키는 데 필요한 환경의 요구는 아주 복잡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기러기엄마들의 물리적·심리적 부담은 가중됨을 알 수 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해 내야한다는 점과 현저하게 줄어든 네트워크를 보면, ‘고달픔과 외로움’을 기러기엄마들의 일상생활의 특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누군가와 좀 떨어져 살아본다는 소극적 목적은 미국에 옴으로써 간단하게 성취되고, 형식적인 가족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부부간에는 별거를 통해 각자 자녀를 위해 희생하면서 오히려 공감할 하게 되고 연민이 생기기도 하며 극단적인 결별로 치닫지 않고 관계가 조정되기도 하였다. 시댁이나 친정으로부터 오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고 전업주부로서 열등한 관계 속에서 남편의 일상적 시중을 들어야 하는 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러기엄마가 된 목적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러기엄마들이 강도가 다를 뿐 추구하고 있는 자녀교육이라는 목적을 이루는 데에서는 얼마나 성공

9) 우리나라 고학력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국가 중 하위에 속한다. 2007년 현재 전체 OECD국가평균 79%와 달리 우리나라는 대졸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8%이다(서울경제신문 2007년 9월 18일).

적인가를 생각해보고 기러기엄마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이러한 선택이 유효했는가에 대해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기러기엄마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그림들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딜레마를 발견할 수 있다. 미국 언어와 미국 문화를 습득시키기 위해 한국인을 피하고 한국문화를 차단하고자하는 전략은 성공적인가? 기러기엄마가 가지지 못한 언어¹⁰⁾와 문화자본 때문에 소극적으로는 일상적 필요를 해결하는 방편에서 결국 한국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한국식품을 파는 한국시장, 한국인이 하는 보험계약, 한국 사람에게 자동차수리를 의탁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부모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혹은 학업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한국출신의 조기유학생들은 미국사회의 이해 혹은 미국사회로의 통합에 있어서 부모로부터 아무런 사회적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러기엄마들이 친근해지기를 희구하는 미국인 미국사회가 기러기가족을 얼마나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이 딜레마의 다른 한 측면을 구성한다. “미국 사람들은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살면서도 가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더구나 언제 떠날지 모르는 자녀교육에 올인(all in)하는 그러한 기러기엄마와 가족을 사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미국의 학교교육은 어디까지나 자국민을 위한 것일 뿐 이민도 아닌 일시적인 유학생을 위한 배려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그 자체로 주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인과의 상호작용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언어장벽이 높아 교사와의 면담을 회피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 자녀가 중계해야하는 것이 기러기엄마들이 일상적 체험이었다. 그리고 또 학부모회에 참가하여 발언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성적에서 월등하다고 해도, 정서적으로는 학교생활에서 주변화 되는 결과¹¹⁾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보겠다는 전략도 시간이 흐를수록 성공적이기 어렵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기러기엄마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에게 해 줄 수 있는 일이 밥해주시기와 차 태워다 주기만 남게 되고, 자녀에 대한 통제력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사하기 이외에 다른 기제가 없다. 미국에서 영어교육으로 석사학위만 받은 고선희 씨의 경우에도 중·고등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들어간 자녀들의 숙제를 전혀 효과적으로 도울 수 없었다. 즉 영어에서 약간의 이해력이나 구사력이 있다고 해서 자녀의 교육을 상세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져 미국의 좋지 않은 문화와 격리를 시키겠다는 어머니들의 생각도 시간이 갈수록 개인화되어가는 자녀의 일상적 생활을 일일이 감시하기도 어렵고 또 그러한 간섭을 점점 거부하는 자녀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기러기가족이 이러한 방식의 삶을 선택할 때, 미국에서의 교육이 가져다 줄 이익을 보다 크게 생각하고 부수적인 비용에 대한 계산을 생략한 결과, 미국으로 온 이후에 후회하거나 친구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만류하겠다는

10) 한국 이민 일세대의 이민자들이 얼마나 적응했는가하는 문화적응에 대한 척도로는 영어 능통성과 대중매체를 통한 미국문화에 익숙해진 정도, 그리고 한국이름을 고수하는 정도를(Hurh와 Kim, 1984), 문화적 정체성, 무화에 대한 지식, 현지 음식에 대한 친숙도(Gim과 그의 동료들, 2004) 본다(권영인, 2008:5에서 인용).

11) 미국학생들도 동양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이재현씨 자녀와 차영주씨 자녀에 대한 보조 인터뷰의 결과 및 조혜영의 2007년 연구 232쪽도 같은 의견임).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가질 수 있는 미국에서의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는 성공신화 몇 가지와 학군에 관한 객관적 지표들이지 와서 체험해보아야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은 없다. 기러기가족의 증가에 따른 각종 우려를 반영하는 비과학적 담론 혹은 왜곡되고 과장된 담론 이외에 기러기가족이 치러야할 부정적인 비용부분에 대한 정보나 지식 특히 기러기가족을 이끌고 미국에 가서 생활해야 하는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연장된 장기체류가 기러기엄마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는 중요한 질문이 된다. 미국문화에 적극적으로 통합되거나 최소한 동화될 가능성은 이민 1세대보다도 동기가 약한 기러기엄마들에게는 희박해 보인다. 한국에 돌아갈 가능성과 경쟁적 한국교육에 적응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자녀들, 그리고 소원해가는 남편, 한국에서 상실된 네트워크, 미국에서 구축하지 못한 친밀한 관계는 분명히 기러기엄마의 미래생활 그리고 정체감에 대하여 부정적인 그림을 상상하게 한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떻게 일상생활을 구축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미국사회에 보다 깊숙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과제가 된다.

그렇다면, 한국에 남아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이 나았는가? 장기체류가 아닌 단기간 정기 체류를 선택했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은 당사자들의 물음이기도 하다. 단기간의 별거나 단기간의 미국에서의 교육이 가족관계와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대해 가지는 기러기엄마 들의 목표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아직도 많은 가족이 실험중인 그 기간이 끝난 후에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단연구를 포함한 장기적인 연구, 그리

고 기러기가족의 청소년자녀, 기러기가족의 부모, 기러기가족의 부모와 자녀 등 단일한 대상으로부터 두 명이 한 쌍을 이루는 연구나 가족을 단위로 삼는 다양한 대상을 포함하는 많은 질적 연구, 그리고 보다 보편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양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권영인(2008). 문화적 변동과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 『전지구화 속의 한국가족』, 한국가족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13.
- 2) 김선미(2006). 일상성연구의 가정학적 함의. 대한가정학회지 44(8), 161-169.
- 3) 김선미(2007). 재미 국제 장기 분거가족 전업주부의 일상적 삶과 정체성 유지에 관한 연구 : ‘기러기엄마’ 되기 과정.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4), 171-189.
- 4) 김성숙(2006). 기러기아빠의 생활 변화와 적응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41-158.
- 5) 김영희, 최명선, 이지향(2005). 뉴질랜드 거주 기러기 어머니의 생활 실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11), 141-152.
- 6) 김양희, 장은정(2004). 장기 분거 가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기러기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23.
- 7) 손승영(2006). 한국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과시.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 201 9(2), 245-274.
- 8) 아리에스 겐(1998). 생활사연구의 시각. 일상생활의 사회학. M.마페줄리, H.르페브르외저, 박재환, 일상성 일상생활연구회 편, 서울 : 한울아카데미, 222-243.
- 9) 안병철(1996). 조기 유학의 현황과 과제: 북가주(Northern California) 조기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67-81.
- 10) 엄명용(2002). 장기분거가족의 전문직 남성 문제: “기러기아빠”.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0

- (2), 25-43.
- 11) 전현옥(2003). 뉴질랜드 조기 유학의 현장. *교육비평* 11, 33-43.
 - 12) 조삼섭, 심성옥, 신일기, 이지현(2006). 조기유학 성공과 실패 사례조사 및 학부모 계도를 위한 홍보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
 - 13) 조은(2004).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의 가족 - 신글로벌 모자녀 가족사례 연구. *경제와 사회 통권* 64, 148-171.
 - 14) 조혜선(2004). 조기교육과 어머니의 역할. *한국여성학* 20(1), 12-27.
 - 15) 조혜영(2007). 조기유학생의 학업수행과 적응에 관한 연구 : 미국 소도시 유학생들의 사례. *한국문화인류학회지* 40(2), 203-245.
 - 16) 조혜영, 최원기, 이경상, Nancy Ablemann (2007). 청소년들은 어떻게 조기유학을 결정하게 되는가?- 미국 소도시 유학생들의 사례. *청소년학연구* 14(4), 115-143.
 - 17) 최양숙(2005). 조기유학 · 가족 그리고 기러기아빠. I *한국학술정보*.
 - 18) 최양숙(2006). 부분부거경험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본 기러기가족 현상. *가족과 문화* 18(2), 37-65.
 - 19) 최양숙(2008).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인한 분거가족에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기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2), 67-97.
 - 20) 한준상, 기영화, 강양원, 박현숙, 샤론 메리엄(2002). 조기유학생 적응지도에 관한 연구: 조기유학제도의 문제 및 개선방안. *청소년학연구* 9(1), 199-220.
 - 21) Berry, J. W.(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697-712.
 - 22) Chao, R. K.,(2006). The Prevalence and Consequences of adolescents’ Language Brokering for Their Immigrants Parents. In M. H. Bornstein & L. R. Cote, *Acculturation and Parent Child Relationships: Measurement and development* (pp. 271-296). Mahwah, N.J.
 - 23) Creswell저 조홍식의 역(2006). *질적 연구의 다섯 가지 전통*. 서울 : 한울출판사.
 - 24) Lin, N.(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Views of American Women and Why They Change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25) Morales, A.(2005). Language Brokering: An Intergrative Review of the Literature.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7, 471-503.
 - 26) Nancy Lopez(2003). *Hopeful Girls and Trouble Boys; Race and Gender Disparity in Urban Education*. London: Rutridge.
 - 27) Orellana, M.F., Dorner, L., & Pulido, L.(2003). Accessing Assets : Immigrant Youth’s Work as Family Translators or “Para-Phrasers”. *Social Problems* 50, 505-524.
- 접수 일 : 2009년 1월 14일
 - 심사 일 : 2009년 1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2월 12일